

<제8차>

이사회 회의록

< 2010. 10. 25(월) >

한국장학재단

제8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10년 10월 25일(월) 11:00 ~ 13:30
- ② 회의장소 :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24층)
- ③ 출석임원 : 8명
 - 이사장 이경숙
 - 이 사 김춘선, 김은섭, 소기홍(당연직 代. 김병규 교육과학예산과장),
이기봉(당연직 代. 강병삼 학생학부모지원과장), 문태현, 이현봉
 - 감 사 홍동현
- ④ 불참임원 : 5명
 - 이 사 정은보, 김명환, 정해룡, 홍규덕, 천세영
- ⑤ 상정안건
 - 의결안건(3건)
 - 제8-1호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안)(2011~2013)
 - 제8-2호 직제규정 개정(안)
 - 제8-3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보고안건(2건)
 - 제8-1호 2010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보고
 - 제8-2호 “인력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 ⑥ 소관부서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부, 감사실

2. 논의 결과(요지)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전차서면회의결과 보고

① 의결안건 제8-1호 :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안)(2011~2013)

① 안건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경영목표의 수립)에 따라 상정
-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예정

· 전략 목표

- 최적의 학자금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 특화된 장학지원 체계 구축 및 통합화 추진
- 인재 성장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고객가치 중심의 융합형 사업추진 인프라 구축
-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인프라 조성

· 최적의 학자금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 추진계획

- 고객 중심의 학자금대출 지원 서비스 확대
- 안정적 학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관리체계 구축

· 특화된 장학지원 체계구축 및 통합화 추진 주요 추진계획

- 국가 장학 통합서비스 제공 및 장학금 지원체계의 선진화
- 차별화된 장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 **인재성장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주요 추진계획**
 - 미래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 구축
 - 인재육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고객가치 중심의 융합형 사업추진 인프라 구축 주요 추진계획**
 -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융합형 사업추진 기능 강화
 - 고등교육 Study-life-cycle을 고려한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체계 구축
-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인프라 조성 주요 추진계획**
 - 가치창조형 조직문화 구축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OSAF 위상 정립 및 고객만족 경영 추진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비전, 경영목표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SWOT 분석결과 중 약점이 리스크 관리, 연체 잔액 증가 추세 인 것을 보면 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지향할 점은 학자금의 안정적 지급, 재무와 리스크 관리라고 보임. 현재 중기목표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좀 더 중요한 전략 목표로 부각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장학재단의 평가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이라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장학재단에 대한 의견을 매년 평가 및 환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임.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ICL 인터넷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음. 물론 장학재단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겠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 11페이지 향후 경영환경 분석에서 약점 부분은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고객 응대에 취약한 사업구조의 원인인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변경을 고민할 때 정부의 출연금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 고려해야 할 것임.
- 26페이지 채권 전담 관리반 구축은 이 관점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임. 장학재단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외국의 경우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리스크관리, 부실채권 회수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금 중기목표에 채권 회수의 목표치 등이 있는데 신보 등 외부기관의 목표 및 회수율 등을 알아서 목표 세울 때 참고했으면 함.
- 39페이지 지도자급 멘토링 사업의 경우 올해 런칭했는데 내년에는 확대 예정으로 되어 있음. 내년에는 평가 등을 하고 잘 되고 있다면 홍보를 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에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단에서 가장 급한 것은 통계와 조사라고 보임. 장학금 관련 통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새로운 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 장학관련 통계와 조사기관 정착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단의 장학금이 아닌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 등이 매우 시급함.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단법에서 3년 마다 종합평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을 예방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경영상의 목표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40페이지의 복지지원서비스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는 핵심역량을 주요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복지지원의 하나인 기숙사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등 업무의 중첩성이 존재하는 만큼, 재단이 복지지원서비스를 핵심과제로 현재 놓을 것인지는 고려해야 할지 의문점임.
- 장학금 수혜자의 적정성을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15페이지 사업추진전략 중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융합형 사업 추진은 학자금 지원을 떠나서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 사업을 확대시키는 개념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과부, 기재부를 포함한 주변에서 대출이자 높다는 여론이 계속 많음. 이것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이자율이 정해지는 방식을 고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자율을 못 내리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올해 예산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이 너무 낮아 많은 이야기가 나왔음. 대출과 관련해 목표나 예상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세팅해서 예산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대학의 대출제한에 대한 재단의 역할이 언급이 없음. 이것을 바로 적용시키기 부담스러우면 어느 정도라도 중기 경영목표상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융합형 사업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재단의 대출, 장학, 인재육성이라는 세가지 주요사업을 연결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다는 의미임. 대출을 장학으로 연결한다던가 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음.
- 이사님들 모두 관심을 가지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단 내부에 리스크관리팀을 만들었음.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정부 기관과 연결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자금조달에 있어 현재까지처럼 시장이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내부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중기목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음. 정부 전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겠음.
-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면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많이 조사하고 있음. 멘토링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보니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많이 상승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음. 멘토와 멘티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추진한다면 재단의 목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교과부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결과임.
- 대출이자율이 높다는 등의 여론의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와 설명을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음. 그에 따라 든든학자금의 대출율이 1학기보다 4% 정도 늘었음. 또한 일반학자금의 경우 수요 예측과 거의 맞았으나 든든학자금의 경우가 아직 실행 초반이라 수요 예측의 차이가 컸음. 이는 정책연구 수행 시 국내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 경우만 참고해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국내의 문화적 정서는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함.

- 목표치가 아니라 예측치이며, 예측의 경우 예산을 넉넉하기 잡기 위해 보수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었음.
 - 1년 정도 진행했으니 든든학자금 수요 예측은 이제 점점 더 실제와 가까워 질 것임. 또한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의 반응을 고려한 외부 용역 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임.
 -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함. 중기 목표에서 삽입과 삭제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함.
 -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신다면 될 것임.
 - 리스크관리는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임. 전문 인력을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음. 완성되면 경영보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중기목표가 아니라 항시 신경써야 할 부분임.
- 금리의 경우 OECD 국가와 세율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점을 재단측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음. 이 외로 복리이자 등 부정적인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음
 -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후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고자 함

③ 논의 결론

- 지적한 부분은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고자 함

② 의결안건 제8-2호 : 직제규정 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기 경영목표 달성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직제규정 개정

· 개정안

현 행		변 경(안)	
부서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학자금 여신1부	-학자금대출(일반,ICL) 제도기획,실행,운영	여신 기획부	-학자금대출(일반,ICL) <u>제도기획</u> -이자지원, 기타 정부학자금 <u>대출기획</u> -ICL상환제도기획 -연체관리 기획
학자금 여신2부	-ICL상환제도기획 -이자지원, 기타 정부학자금 대출기획,실행,운영	여신 운영부	-학자금대출(일반,든든)실행,운영 -이자지원, 기타 정부학자금 <u>대출 실행,운영</u> -연체관리 운영
학자금 관리부	-연체관리 기획,운영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관리 -채권추심	상환 관리부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관리 -채권추심

- 경영기획실의 기획·예산 부문과 인사·총무 부문을 분리하여 인력개발부 신설
- 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영기획실 내에 법무팀을 신설
- 통계분석 및 리서치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부(창의경영실 명칭 변경) 내에 조사연구팀을 신설
- 대외협력단 → 대외협력실, 정보전산부 → IT전략부로 부서 명칭 변경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부를 신설했는데 작년에 직제를 개편한 이후 새로운 부서를 하나 창설할 정도로 업무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총무업무는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키울 필요가 있는가? 평가, 선진화, 조사업무 등 미래전략부(창의경영실)이 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이쪽의 인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장학재단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가?
- 지금까지는 재단의 안정화 시기이고, 앞으로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임. 다만 사업부가 기능별로 개편을 하고 경영기획실에 업무가 몰려있어 분리시키고자 한 것이지, 인력을 지원 부서로 집중할 계획은 아님. 가급적 인력은 사업 부서로 집중할 예정임.
- 조직이 앞으로 사업 쪽으로도 많이 확대될 것인데 총무업무를 구태여 부서하나를 추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리스크관리 라든가 하는 업무 쪽의 부서를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고려하겠음.
- 미래전략부에서 신사업이나 리스크관리까지 하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음. 경영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신사업은 여신기획부에 놓는 것이 어떤지? 관리부서에서 신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임. 미래전략부는 썩크탱크 기능으로 트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보임. 또한 조사 연구는 총괄기획업무를 하는 경영기획실 쪽에 연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인사는 어차피 앞으로 조직이 확장된다면 부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함.
-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한 개의 실로 만들 정도인데 인력이 적어 미래전략부에 있음. 여신기획부에 조사연구가 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 지적하신 대로 리스크관리의 경우 별도 부서로 분리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리스크관리 인원을 감안할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음. 차후 별도 부서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 현재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미래전략부에 놓게 된 것임. 조사연구와 신사업 추진의 경우, 신사업 추진업무는 여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학, 인재 육성 등 까지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신기획부에 두기가 어려웠으므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래전략부에 두게 됨. 또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같이 움직여야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래전략부에 같이 있게 됨.

- 장학이나 인재육성의 경우를 고려하면 여신기획부에 두는 것보다는 미래전략부에 두는 것이 맞음.
- 78페이지 인재육성부 기부금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내부에 국가 장학 사업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인재육성부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따로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임. 국가에서 각 부처의 장학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괄하자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장학 사업이 이원화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 것임.
- 재단 형편 상 장학사업부에 여러 일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부금 장학까지 하기에는 힘든 상황임. 기능적으로 장학금을 한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음.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음.
- 기재부의 경우도 법무 업무 담당이 3명인데 경영기획실에 법무팀을 신설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인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보임. 미래전략부의 신사업개발 업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을 발굴한다는 의미로 보임.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닌지?
- 법무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법무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 새로운 상품개발 등이 아니라 대출, 장학, 인재육성을 하나로 연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이 신사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
- 신사업이라는 단어에서 오해가 많이 나온다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음.
- 대출, 장학, 인재육성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 상한과 관련하여 대출이나 장학금 등의 연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함.
- 조사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확대해야 할 업무임.
- 조직개편이 있다 해도 인력의 경우 사업부서로 많이 집중할 것임. 인재육성 지원부의 기부금, 장학사업의 경우 장학사업부로 이관할 수 있으나 논의하도록 하겠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중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반영

이 힘든 부분은 논의해 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③ 논의 결론

- 검토 후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의결

③ 의결안건 제6-3호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정관 7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련 법률 업무 제20조에 따라 상정
- 재단회계 중 학자금대출계정 수입과목에 용자원금회수(관)을 신설하고, 2010년 기부금 집행계획을 시행하기위해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인재육성사업회계를 수정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기부금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중 사랑드림장학금 대상 조건이 되는 학생 모두가 받는 것인가? 아님 선별해서 주는 것인가?
- 조건에 맞는 학생을 대학교별로 5명씩 추천받아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려 함. 이 사항은 교과부와 담배인삼공사에서 요구한 조건을 적용함.
- 학생수가 많은 대학의 경우 5명은 너무 적다고 보임.
- 학생수를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가 생겨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학교당 5명으로 정하게 되었음.
-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연 5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넓히고, 5명이라는 기준도 대학별로 학생수를 고려하는 방향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이미 국가 장학제도와 대학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음. 여기에서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함. 또한 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조건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등록금이 500만원 넘는 대학이 많아 금액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장학금의 경우도 전액을 주는 경우는 없음. 도덕적 해이나 학생들의 자립심 등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하는 학생의 경우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대학별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거의 장학제도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음.
- 예산 회계 부분은 교과부, 기재부와 논의하여 만든 것임.
- 94페이지 표 100명에 15억이면 일인당 평균 천오백만원 정도인데 지급액은 500만원이 기준인 이유는 무엇인지?
- 2학기 동안 지급, 7학기 동안 지급 등의 기부자의 기간별 조건을 고려했을 때의 예산임.
-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의결하겠습니다.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④ 보고안건 제8-1호 : 2010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보고

⑤ 보고안건 제8-2호 : “인력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① 논의 결론

- 시간 상 보고안건 2건은 서면으로 접수

⑥ 기타사항 : 선임 비상임이사 호선의 건

① 주요내용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해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비상임이사 한명 호선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문태현 이사님 추천함

③ 논의 결론

- 문태현 이사 선임 비상임이사로 호선
- 폐회선언. 끝.